

시장경제·한미동맹 재확인 尹, 대통령 권력 분산도 예고

(윤석열)

경총 찾아 “가장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”
전 美 대사에게는 “문화적으로도 韓美 융합해야”
관련개혁위 신설·운영계획 최종안 놓고 논의 진행
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한국경영자총협회(경총)를 찾아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. 그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하는 한편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기구 출범을 예고했다.
윤 후보는 9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을 찾아 손경식 회장 등을 만나 “가장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. 기업이 주연이고 정부는 조연이다”며 “정부는 공정경쟁 여건과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힘을 쓸 것이다”고 밝혔다. 그는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이 아닌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는 ‘기업 성장 사다리 부활’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스타트업이 중소·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.
윤 후보는 앞서 경총이 전달한 정책건의서도 논의했다. 그는 경총이 제안한 유연 근무제 확대에 대해 “주 단위만 고집할 게 아니라 3개월·6개월 등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

잘 반영해야 한다”고 했다. 최저임금제 개선에 대해서 “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·영세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, 소득감소로 이어졌다”고 했다.
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(선대위) 측은 “문재인정부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, 규제 중심 기업 정책과는 다른 철학기반에서 출발했다”고 설명했다.
한편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스티븐스 전 대사와 접견식을 가졌다. 윤 후보는 “우리 심 대시님”이라며 악수를 청했다. 스티븐스 전 대사는 주한대사 재임 시절인 2010년 ‘내 이름은 심은경입니다’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낸 바 있다. 그는 지금은 외교관을 그만둔 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.
윤 후보는 문화적으로도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. 그는 스티븐스 전 대사가 1975년 충남 예산에서 평화봉사로 운영해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


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(오른쪽)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있다.

서부터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다. 스티븐스 대사처럼 서로가 상대국의 역사·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면 양국 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”고 했다. 스티븐스 전 대사는 “한국에 올 때마다 많은 감동으로 한국의 여정을 지켜봤다”고 화답했다.
윤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‘국민이 주인이 된 권력개혁위원회’(가칭)도 발족할 예정이다. 현행 헌법·법률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제 및 권력구조를 개편

하는 방안을 찾는 게 목표다. 선대위 측은 “1탄은 프레지던트 개혁, 즉 대통령 권력 내려놓기 프로젝트다”며 “작은 청와대를 콘셉트로 윤 후보가 스스로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것들을 발굴할 것이다”고 설명했다.
윤 후보는 7월 “청와대 대통령실은 국가 외교·안보에 관한 중요한 판단, 대통령이 행여야 하는 중요 정책, 주요 어젠다를 보고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만 하면 된다”며 “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원인은 청

와대의 사정가능이다”고 말한 바 있다.
권력개혁위원회 신설 및 운영계획을 담은 최종안은 9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 보고됐다.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개헌을 위한 사전 정치작업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.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둔 관측이다. 다만 윤 후보 측은 “대선 선두를 달리는데 모든 이슈를 삼킬 개헌을 전혀 띄울 이유는 없다”고 했다.

오주환기자

뉴스드립

“경제는 정치 주장은 위험”
…네트즌 “100% 공감”

김근식 국민의힘 총괄상황본부 정세분석실장은 9일 자신의 SNS에서 “경제는 과학이 아니고 정치다”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주장에 대해 “포퓰리즘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정치선동에 불과하다”고 지적했다.
또 “북한학계에서 북한 경제 파탄은 본질적으로 경제의 정치화 때문이었다고 평가된다”며 “경제를 정치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정치선동이다”고 거듭 비판했다.
haka**** 100% 공감. 경제의 정치화가 지닌 함의는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 이상으로 주장한 자의 저의가 있다.
wolf**** 저런 게 바로 공산주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.
pond**** 경제는 시장에 맡겨지지 경제가 정치라는 것은 북한에서나 하는 짓이다.

유시민 “이재명 하자 없다”
…“슬슬 바람 잡는 거냐”

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9일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“이런저런 작은 오류는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하자들은 없었던 사람이다”라고 했다.
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 ‘알릴레오’에서 정치평론가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날 활동을 재개했다. 다만 그는 “본격 재개는 아니고 글 쓰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기회가 있을 때는 좀 하고 그럴 생각이다”고 부인했다.
kuk5**** 슬슬 바람 잡는 거냐.
itsn**** 입 좀 다물자.
eije**** 네 말을 이제 누가 듣나.

“개·돼지” 발언 노재승에 몸살 겪은 국힘

(국민의힘)

짚은 발언 논란되자 끝내 사퇴
이양수 대변인 “검증부실 죄송”

빈곤층·재난지원금 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노재승 선거대책위원회(선대위) 공동위원장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9일 하루 종일 혹독한 몸살을 겪었다.
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“그동안 (노 위원장이) 했던 발언들이 (선대위가) 씩 구 글링(검색)해서 본다고 하니 좀 있어 보라”며 “나도 아직 종합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다. 너무 조금하게 그러지 말라”고 말했다.
37세 청년사업가로서 4월 서울시장 보궐



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

선거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연설로 유명한 노 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후

과거 발언들이 발굴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.
그는 지난해 5월 자신의 SNS에 긴급재난지원금 조화서비스 캡처화면을 공유하면서 “생애 단 한 번이라도 생산성 있는 일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뜬구름 잡는 헛소리랑 개밥 주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건가”라고 했다. 또 해시태그로 #개돼지 되지 마시다가 붙여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국민을 개돼지로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.
9월에는 “(코로나19가) 데이터를 조금만 파 봐도 독감과 다를 바 없는 게 자명하지만 오늘도 우매한 국민들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종용하고 감시한다”고 했다.

지난달 5일에는 “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 싫다. 가난하면 뭣한 게 많은데 그걸 이용한다. 정말 치졸하다”며 “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. 그렇지 않으면 이래저래 열등감이 크다. 검정고시 치르고 어찌고 한 걸 자랑한다.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”고 했다.
노 위원장은 “누구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을 기대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선 사치인 걸까”라며 특정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임을 암시했지만 빈곤층이나 검정고시를 거친 국민이 적잖은 점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일었다.
과문이 거세지자 선대위는 노 위원장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노 위원장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. 그는 나아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언론 탓으로 모는 듯한 발언도 했다. 노 위원장은 8일 SNS에서 “공동선대위원장 2일자, 언론의 왜곡스

킬과 집단린치에 허를 내두르는 중이다”고 했다. 7일에도 “대한민국 언론 왜곡도 정말 심하다”고 했다.
선대위 전략기획실장으로 합류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“깜짝쇼 형식의 인제영입은 지양해야 한다. 지금은 감동도 없다”며 “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”고 노 위원장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.
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“인선 과정에 있어 검증은 철저히 하지 못한 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”며 “현재 선대위가 거의 완성됐기에 추가적인 인제영입은 인제영입위원회(영입위)를 통해 할 예정이다. 영입위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”고 했다.
한편 노 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9일 “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직을 내려놓는다”고 밝혔다.

오주환기자

대한민국 으랏차차

칙

캠코와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

도전하는 기업에겐 **기회 도착!** 부채로 힘든 소상공인에겐 **희망 안착!**
활용도 낮은 공공자산엔 **가치 장착!** 함께하는 **따뜻한 금융** 힘 모아 돕겠습니다.

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 **한국자산관리공사**

금융위원회 **캠코**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.kamco.or.kr 문의 1588-3570